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임희정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경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임희정

임희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주 심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학박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다문화	7
가. 다문화의 개념	7
나. 다문화주의	9
다. 다문화사회	14
2. 다문화가정	17
가. 다문화가정의 현황	17
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19
3. 아버지의 자녀양육	23
4. 내러티브 탐구	29
가.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29
나.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31
5. 포커스 인터뷰	34
III. 연구 방법	37

1. 연구자	37
2. 연구 참여자	39
가. 강성수	41
나. 박지만	42
다. 이성현	42
라. 장태환	43
마. 조준욱	43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44
4. 자료수집	45
5. 자료분석	49
IV.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이야기	52
1. 강성수의 이야기	52
2. 박지만의 이야기	58
3. 이성현의 이야기	63
4. 장태환의 이야기	69
5. 조준욱의 이야기	75
V.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경험 다시읽기	81
<참고문헌>	92
<부 록>	105

표 목차

<표 1>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와 국적별 결혼	18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41
<표 3>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	47



Narrative Inquiry on Raising Children Experiences of
Father in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the Families of Vietnamese Marriage Migration -

Hui Jeong Im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Genera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research was to inquiry narratives on raising children experiences of 5 fathers in Vietnamese Marriage Migration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5 Korean mans lived in Busan who have married Vietnamese women and were raising their children. The participants' narratives from personal interviews and focus interview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rough N_Vivo 9 progra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had serious problems of verbal communic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 their Vietnamese wives. Therefore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to raise their children and felt pressures on their complex roles for their famil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fathers'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ed two aspects - they resembles with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in families of late married man and

double-income families.

Third, the participants worried about their economic competencies for car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So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more specific and realistic for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ing support.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가 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 주변에 내국인과 다른 피부색과 머리, 복장과 음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의 교육과 더 나은 꿈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나라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지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 한국 사회도 이미 빠른 속도로 변화가면서 다문화 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이는 철학, 사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다원주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구조의 선진화에 따른 3D 직종의 기피 현상과 이에 대한 산업구조 체질 개선의 지연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1차 산업의 기피,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어촌의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포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농어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계기로 농어촌에 국제결혼이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여 11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던 2009(1,106,884명)보다 32,399명, 즉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0).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세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수는 30,040명으로 2009년(24,745명)과 비교하여 21.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7,998명)에 비해 네 배 이상이고, 2007년(13,445명)에 비해서도 급속도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78.6%가 초등학생 이하 연령이며, 16.0%가 중학생, 5.4%가 고등학생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또 다른 실태조사(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설동훈, 심인선, 이해경, 정기선, 조애저, 2010)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세대 중 6세 미만의 영유아가 66.5%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기 자녀는 점차 증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집단의 의사소통문제, 교육문제, 인권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부족, 정체성 혼란 및 집단따돌림 현상, 교육기간의 공백으로 인한 성적 부진 등의 학교부적응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고립, 자녀 양육 환경 취약, 저소득 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이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이혼 급증, 신분상의 불안, 사회적 편견 등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조승호, 2011).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여러부처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 2006년 6월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통합 지원대책'을 마련 12개 관련부처 7개 과제를 내놓았고, 2007년엔 여성가족부에 가족통합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차원의 가족 업무 전담부서를 설립하였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3월엔 보건복지부에 다문

화가족과가 신설되어 다문화가족 업무를 전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 업무는 불과 2년 동안 전담부서조차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혼란을 겪었으며, 다시 20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2010년 1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2010년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현지 사전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 국제결혼과정부터 입국 전·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희정,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 한국문화 이해교육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선 및 대학생 멘토링 적용’,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여성부의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교육을 하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세대와 세대 간의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가정생활에서조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을 공유하는 아버지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자녀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제적 제공자의 역할, 바람직한 성격 형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가지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 바람직한 환경 조성의 역할, 기본적인 훈육으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역할, 집안의 통솔자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갖고 사회 전통 및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 건강 및 위생문제에 관심을 갖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강진희, 2000). 특히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양 부모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졌던 많은 역할을 아버지가 공유하거나 혹은 분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주자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은 일반 가정에서의 역할보다 더욱 다중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 또는 아버지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내에게 그리고 정체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와 그 외 가족들에게 문화의 전달자이자 융합자, 또 문화적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 중심의 자녀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양육을 주도 내지 적극 분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는 양육자이자 문화교섭자, 문화연결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결혼이주자 여성이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 전체나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나 국가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나 관련 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정 남성을 대상으로 ‘남편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소수계층 및 약자집단의 사회적·사회적 문화적 신분을 끌어올리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주어 한다(Sleeter & Grant, 1994)는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한 지원이 보다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있어 일반가정의 부모들보다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

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은 조사 대상 아버지가 41세 이상의 연령으로 전통적인 아버지상과 가치관을 가진 세대인데다 일반가정의 아버지에 비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더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어머니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정수경,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이 어떠한 양육 현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쉽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그들 삶의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심층적 자료를 얻기 위해 면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는 서로 잘 알지 못하면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Padgett, 1998),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참여자들이 모여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귀선, 2009). 이러한 점에서 포커스 인터뷰는 다문화가정의 배경을 가진 아버지들을 면담할 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삶과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녀양육 경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다문화가정 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하며, 그것

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내러티브를 수집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갖는 양육 역할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녀 양육 내러티브를 개인적, 집단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세대가 확대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먼저 다문화의 개념을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다문화가정의 양육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가. 다문화의 개념

한국의 다문화는 관련 용어와 호칭의 사용,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인종·다민족화(다문화)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며, 특정 권력이 용어나 호칭을 강제하지 않고, 연구와 정책의 대상이 아직 주체화, 정치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개념과 용어, 호칭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김혜순, 2007)는 다문화 연구에 있어 용어나 호칭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짚어보기에 앞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그것은 문화라는 말이 넓은 영역에서 여러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원을 살펴보면 문화라는 단어의 영어의

‘culture’나 독일의 ‘Kulter’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cul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단어는 “밭을 갈아 경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단어는 이런 본래의 의미 외에도,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뜻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현재 문화는 사회적 집단에 의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윤희, 2003).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것, 먹는 것, 옷을 입는 것, 주거의 형태, 스포츠와 레포츠를 즐기는 것 등 신체와 관련된 일과 예술 작품을 생산하고 관람하는 일,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는 것과 경영을 하는 일까지도 문화에 포함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문화를 ‘일상적인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현대의 문화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위인규, 2001).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인 만큼, 모든 문화가 공존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다문화의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같은 집단일지라도 나름대로의 분절되고 독특한 양상의 문화 형태들이 조합을 이루어 한 사회가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공존하는 것’,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속한 개인, 집단, 국가가 평등, 상호존중,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보편적 가치’ 등으로 설명된다. 문화의 상호이해와 공존이 다문화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따라서 어느 문화든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보존과 향유에 있어 권리를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현상은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화와 별개로 인종과 민족의 종이 다양해지

는 현상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문화는 특정한 집단의 고유한 생활 수단과 이를 통해 발현된 유무형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 집단 등이 다른 사회로 유입되더라도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인종과 민족, 문화는 상호 의존해 변화와 발전을 하므로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수반하며, 이러한 현상을 다문화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인종, 민족적으로는 동일하나 문화는 다른 외국국적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구유입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인종·다민족화 현상’이라 지칭하면서 다문화를 논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한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을 다문화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아름, 2009).

다문화라는 언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첫째는 다문화를 ‘다인종’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문화를 단일문화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하는 ‘소수(집단)문화’로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다문화를 ‘다양한’ 문화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캐나다의 정책 방안으로 선창되었다.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등장은 1971년 당시의 캐나다 연방수상이었던 Trudeau가 캐나다를 통합할 새로운 이념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문화주의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적

균열들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된 다문화주의는 이후 철학적 논의가 더해지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분야에 따라, 학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 다문화주의란 용어가 사용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처럼 다양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주의란 명사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 로베르(Petit Robert)』 사전은 다문화주의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다문화적인 현실이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Nathan Glazer가 1997년에 출간한 저서에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주의자다(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라고 제목 붙인 것은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란 용어는 그러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회적·정서적·철학적 답변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이한 답변들이 돌출되고 있다. Vertovec은 다문화주의가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 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 박혀있는 ‘모자이크(mosaic)’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을 의미한다. 다문화적 정체성이라 함은 강제와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뜻한다.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주의에서는 다양

성과 차이의 포용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속된 특정문화의 지배를 종결짓고,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통하여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에 근거하는 삶의 방식, 실천, 관점을 의미하는 특정문화 주체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강희원, 2006).

다문화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 상호순환하고 통합하며 발전하는 주류사회의 문화와 수입 문화의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혼합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를 요구한다. 송도영(1995)은 다른 문화를 자기 문화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국 어떤 하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모든 현상을 규정하려 하지 않고 각 현상들의 형성과정과 배경 및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현상들의 형성과정과 배경 및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며, 그 문화 안에서 갖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Matiello(2002)는 다문화주의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에서 개인이 다문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원이고, 정치적 다문화주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해 내는 것이며, 강경 다문화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의 확장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가와 관계가 된다. 문화적 통합과정에서의 소수 집단의 선택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와 상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Kymilca(2001)는 ‘사회적 문화(societal culture)’로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소수 집단에서는 네 가지 선택이 놓여있다고 본다. 첫째 대규모 이민, 특히 그들 주변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만한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우호적인 국가가 있는 경우, 둘째 좀 더 공정하고 나은 통합의 조건을 협상하면서 주류문화에의 통합수용, 셋째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자치권력 추구, 넷째 사회의 주변부에서 단지 간섭받지 않기를 바라며 영구적인 한계화(marginalization)를 받아들이는 경우로 분류된다(이용승, 2004). 따라서 Kymilca(2001)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의 선택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수자는 자기 문화를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이민자는 이민의 선택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받아들임 또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경계지대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영역을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한 국가가 이민자들을 어떻게 국가 안에 받아들이고 포함시키는지에 관해 몇 가지 정책 모델로 구분되고 있으며 크게 동화주의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동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집단의 동화를 향한 국가정체성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소수집단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흡수됨으로서 인종이나 민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동화주의모델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 수준에 그친다. 즉, 동화주의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단, 2006). 과거와 달리 동화주의모델은 사회의 소수 인종 통합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Zehraoui, 1995).

다문화주의모델은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Inglist,

1996). 다문화주의모델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한 사회의 소수자들도 자신의 문화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개인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Kymlicka, 2001).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의 기본 구성 원리로 채택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굳이 출신문화를 탈피해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호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한승준, 2008).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극도로 다양화된 현실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문화주의를 그저 공동체적 분리주의와 소수집단의 독채를 예찬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축소시키는 것은 환원적 태도일 것이며,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후기 국민사회의 유일한 관건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보다는 다문화주의의 표류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위험을 피해야만 다문화주의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좀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시민의 투쟁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orey(1996)는 다문화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 시대를 이루게 된 것은 다문화주의라는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철학적 배경은 현대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념 그리고 그 형성 배경을 밝히는 것이 다문화 시대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문화사회의 개념 규정은 원칙적으로 다문화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는

많은 논의들은 고유한 문화들의 공존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규정하고자 한다.

다. 다문화사회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는 부적절한 말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냉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출신이 함께 어울려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이다(최연선, 2009) 즉,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이며, 이를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휘원(2006)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을 이야기하고 있어 결국 다문화사회란 이질적인 문화가 유입해 들어오는 사회라는 견해를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욕구충돌을 기존시민과 새로운 이주자의 동화욕구와 보존욕구로 나누어 기존시민은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해 그들이 주류사회에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주류사회의 문화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반면에 새로운 이주자들은 주류문화에 한 개인으로 인정되고 주류집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동화욕구와 소수집단의 일원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존욕구가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다. 둘째는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로써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은 첫째의 경우로 볼 수 있다(김남국, 2005).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19세기말 한국사회에 이주해온 중국인들로 오늘날까지 화교로 불리며 한국사회에 정착해오고 있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국내의 외국인 접촉은 주로 주한미군과 혼혈인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부정적 이미지와 한국사회에서 부끄럽고 감춰야 할 것, 또는 없는 듯 무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면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자, 1989년 이후 산업계, 노동계, 정부 및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편법시비가 끊이지 않

있던 산업연수제도를 대체할 제도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처우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의 국제결혼은 외국으로 이주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1980년대 이후 외국인의 유입과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송출이 증가하였으며 종교단체, 주로 통일교회의 해외선교 정착에 따른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이주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유형이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으로, 우리나라로의 이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대상국가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약 15만 9천명을 넘으며,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약 8만명을 넘는다. 특히 2001년 이후 국제결혼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15,234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는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이른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27.4%로 4건 중 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보다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면서 이들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전되며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자성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그 열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 속에서 대면하는 이주민과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

가. 다문화가정의 현황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다. 국제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 원래 국적이서로 다른 구성원이 가족이 될 경우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을 의미한다. 즉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다문화가정의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대표적인 다문화가족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며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가족이다.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주민가족이다. 넷째, 1인가구로 혼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 국제결혼의 증가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측면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독신자 비율 증가와 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문화적인 측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국제결혼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표 1>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와 국적별 결혼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중국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베트남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필리핀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일본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태국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몽골	320	504	561	594	745	521	386	428
우즈베키스탄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26
기타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1,648	1,532

출처: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11)

2011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2만 6천 3백 건으로 전년보다 4.5%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을 국적별로 살펴

보면, 중국 9,623건(36.6%), 베트남 9,623건(36.6%), 필리핀 1,906건(7.3%) 등의 순이며 중국과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한다.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감소하였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121,93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0.7%에 해당한다. 이는 2009년 대비 14,246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 만 6세 이하가 75,776명이고, 만 7-12세 이하가 30,587명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87.2%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는 2008년 12월 58,000명에서 2009년 5월에는 107,68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의 13.6%의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을 통해 형성되는 자녀군은 2013-2015년에 이르러 전체 취학 아동의 13%를 훨씬 넘을 것이다. 특히 2020년에 이르면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절반을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충욱 외, 2010)

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연구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결혼 후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겪는다. 설동훈 외(2005)에 의해 연구된 전국 규모의 여성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가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도 57.5%,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도 15.5%에 이르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어머니 경제활동 참여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활동 이유로는 생계유지 목적(51%)과 자녀교육비 충당(17%)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사유로는 자녀 양육(43%), 다음이 구직 실패(21%)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자녀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들의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조영달, 2006).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문제로 조영달(2006)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집단 따돌림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를 통해 주로 한국말을 배우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러한 언어능력(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등)의 부족은 곧 의사소통의 부진과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결국 집단 따돌림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경우 집단 따돌림의 원인(설동훈 외, 2005)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34.1%)와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족(20.7%), 특별한 이유 없음(15.9%)과 태도와 행동이 다르기 때문(13.4%), 외모가 다름(4.9%)에서 기인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 집단 따돌림을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다문화가정은 서로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양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범위도 다소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다

문화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 및 교육법을 모름,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과의 양육 방식의 차이,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학습지도와 관련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비와 양육비의 부담 등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최은정, 2008;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7).

김영옥, 임진숙과 정상녀(2008)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연령, 직업, 한국입국연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수단, 자녀의수)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현경순(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에서도 자녀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교일(2010)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적 수준, 출신국에 따라 자녀관계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수준, 양육 효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과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모효능감, 출신국가, 자녀기질 스트레스 순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과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진숙(2008)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양육태도의 차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및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령, 소득,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김기현, 2008; 김혜진, 2004) 자녀의 나이, 교육수준, 한국생활기간, 가족의 형태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미숙, 2009; 김춘화, 2009; 정혜영, 2009; 한경선, 2008).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차

이가 없다는 연구(백영숙, 2007) 결과도 있다.

김민경 등(2009)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에서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성을 도모하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인종적 편견, 언어의 문제, 이중 문화생활 배경에서 오는 문화 부적응,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낮은 교육수준 등에서 비롯된 갈등에 직면한다는 김갑성(2006)의 연구가 있다. 박은애(2007)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교육에 높은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와의 주요 대화 내용이 학습과 학교생활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설문조사에서 도시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였지만,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사이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영주(2007)는 가족 내에 이중문화특성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 자기문화의 관점을 강조하거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을 높이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기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적 측면에서 유아교육기관 및 유아교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 연구의 초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말에는 다문화의 개념(양옥승, 1997; 장영희, 1997),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장선희, 1997), 반편견과 세계의 이해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김영옥, 2002; 박성연, 2001; 박지희, 2002;

이현숙, 2000)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으며,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06년 이후는 주제가 세분화되었고 그중에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가지는 신념과 인식, 효능감(김혜자, 2009; 안효진, 전덕수, 2008; 이선미, 2008; 송지연, 2008), 교육 실태와 실제 교육에서의 어려움(박미경, 서현, 이승은, 2008; 이승연, 2008)과 같이 교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유아들에 대한 반편견 교육 연구(김경숙, 윤현숙, 최미숙, 2008; 김지선, 2008; 최경숙, 2008)가 계속 발표되어 왔는데, 이처럼 영유아교육현장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외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과 언어 능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의 실태(구효진, 최진선, 2007; 김민화, 신혜은, 2008; 서현, 이승은,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 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김은주, 2009; 박미경, 엄정애, 2007)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해 가정의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들, 특히 양육적 역할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아버지가 연구의 관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는 어머니의 역할과 다른 아버지의 역할이 주 관심이었고, 실제 아버지가 연구의 주 관심이었다기 보다는 아버지가 가족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었을 뿐이다. 그 후 아버지 자체가 연구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 이 시기부터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성 자신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발표된 자녀양육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제는 크게 양육 역할수행 및 양육참여,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로 구분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결혼과 관련, 사회문화적, 유아의 특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아버지의 연령과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젊은 아버지들이 양육이나 자녀와 일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란혜, 1990; 김소영, 2000; 김정주·김용미, 2007; 조선희, 1998; 홍성례, 2001). 이러한 결과는 40-50대의 남성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젊은 연령층의 남성들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행복과 목표를 직업에서가 아닌 가족의 친밀한 관계와 가정생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가족 지향적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홍승민, 2005). 반면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할수행이 낮거나(김옥엽, 1982; 위영희, 1980) 아버지의 연령과 아버지 역할수행과는 관련이 없다(양미경, 1996; 이화진, 1995; 조원지, 2001; 황길현, 1997)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아버지가 40대, 50대 아버지들 보다 학력과 역할수행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조원지, 2001)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보다 대학교이상의 학력의 가진 아버지가 역할수행에서 높게 나타났다(이성희·한은주, 1998).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낮거나(허경옥, 1994) 아버지의 학력과 아버지 역할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김소영, 2000; 윤종희·이인숙, 1993; 이화진, 1995; 홍성례, 2001)는 결과도 나타났다.

아버지의 수입과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이 높다(김정주·김용미, 2007; 이화진, 1995; 조원지, 2001)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반면 아버지의 수입이 적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난다(김소영, 2000; 장미나, 1994)는 연구결과와 아버지의 수입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관련이 없다(이성희·한은주, 1998)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들에서 맞벌이 가정인 아버지가 역할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00; 민현숙, 1997; 윤서영, 1999; 이미숙, 1995; 이순희, 2004; 장미나, 1994; 허경옥, 1995). 이러한 연구결과는 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선택인 반면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은 자녀양육 참여의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공진수, 2006). 반면에 배우자의 직업 유무는 아버지가 아동보호에 보낸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Coverman & Sheley, 1986), 부인의 취업과 아버지 역할수행과는 상관이 없다(김소영, 2000; 조원지, 2001)는 결과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순희(2004)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과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자녀 양육도가 높으며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및 전반적인 삶의 여유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경혜(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정규업무시간이외에도 근무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모임으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슬기(2005)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의 태도로 이어져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을 중요한 책임으로 지각하는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희숙(1995)는 유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수행과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본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수행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idin(1990)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아버지 역할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하게 된다(노면희, 1991; 박성연, 1992; 이혜영, 1996; 이화진, 1995; 장미나, 1992). 즉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아버지는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참여하는 반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아버지는 자시과도 거리를 두게 되어 자녀와 정서적으로 풍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Nugent, 1991).

허선자(1992)의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버지의 역할지각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소영(2000)의 연구에서도 첫 자녀가 전 학령기에 속한 집단의 아버지 역할 몰입 점수가 학령기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높았다. 반면 유아의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2세일 때 보다 5세 때에 더 많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ossman et al., 1987) 자녀의 연령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원, 1994).

이성희와 한은주(1998)의 연구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이 낮았으며 다른 연구들(김양호, 1997; 이희령, 1995; 장미나, 1994)에서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미경(1996)의 연구에서 첫째 아이의 아버지들이 둘째 아이 이후 아버지들보다 자녀양육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수와 아버지 역할수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윤현선, 1984)고 밝히고 있어 자녀수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김정주와 김용미(2007)의 연구결과에서 남아의 아버지가 역할수행이 높았으며 특히 자녀부양, 자녀이해 역할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들보다 딸에게 역할수행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더 높은 수준의 역할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화, 1998; 최경순·오미경, 1991). 또한 아버지가 아들보다 딸에게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고(이희자·정영숙, 1980),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거부적, 통제적임이 나타났다(하순홍, 1991).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된 변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lkovitz, 1980), 아버지 역할수행에서 남아와 여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강정원, 1994; 김소영, 2000; 김희주 1997; 허선자, 1992).

아버지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조선화와 최명선(2002)은 아버지들의 자기보고서를 통해 양육경험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세미(2007)는 유아동기 자녀를 둔 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의미를 질적 분석하여,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싶은데서 오는 어려움, 아내와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아버지 관련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주제도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경우, 한현이(2011)의 ‘미취학 자녀를 둔 일반가정 아버지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에 의하면 일반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력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생산직에 근무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고 사무직에 근무하는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자녀영역과 자녀영역에서 높으며 월수입에 따라서는 아버지 영역과 자녀영역에서 수입이 적은 그룹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일반가정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자녀들이 가진 문제가 더 많았다.

홍주화(2011)의 ‘부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공감능력, 가족기능 및 자녀의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공감능력과 가족기능, 자녀에 대한 사회성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원(2010)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비교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은 일반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반면,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버

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 여가활동참여와 생활지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아동을 잘 구별해주는 요인은 아버지의 학력, 거부/적대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로 나타났다.

공민정(2011)의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보육프로그램 요구도 및 기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정도에 대해서는 인간관계, 정서적 적응, 생활 적응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적응에 대한 차이에서는 부의 특성보다 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적응하는데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보육프로그램 요구도에서는 자녀의 한국어 소통정도에 따라 건강발달이, 모의 학력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역별로 요구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가정의 유아들과 발달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기대를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적응정도는 부의 직업과 자녀가 보육시설을 다닌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라는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의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내러티브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글이나 말 혹은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Schols(1983)는 내러티브를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열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사고는 경험의 핵심 형식이고 그에 대해 기술하고 사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내러티브 탐구란 한 인간의 세계와 자신의 관계적 삶을 탐구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인 동시에 삶의 과정(또는 경험) 그 자체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단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기술하려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단지 현장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박세원, 2007).

박민정(2006)은 내러티브 탐구를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 표현되지 않았던 경험의 측면들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과 타자를 관련짓고, 인간과 자연을 관조하고,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내러티브는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조직화하고 구성하는 자연스러우면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

여자간의 협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 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고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이다(Connelly & Clandinin, 2000).

나.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 단계는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여 이야기를 통하여 정보를 모으고 연구자는 경험의 이야기를 쓰는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을 잘 들어낸다. Connelly와 Clandinin(1990)은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편의상 다섯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다섯 단계들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서로 겹치고 중복되기도 한다.

(1) 현장으로 들어가기 :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물색하고,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의 참여자들과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엄지숙, 200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 설정했던 연구문제나 목적이 변화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Clandinin와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며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당연시 되었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는 연구 자료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data)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현장 텍스트를 쓰는 과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연구에서 말하는 현장텍스트는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 현장 노트, 편지, 대화, 인터뷰, 가정사(family stories),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문서와 사진들이 포함될 수 있다.

너무 깊이 개입할 때 생길 수 있는 객관성의 결여와 너무 멀찍이서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는 내러티브 탐구가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여자들과 같은 맥락의 경험에 대하여 글 쓰는 것이 연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는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부르는 대신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데이터 또는 자료는 '발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용되는 현장텍스트로는 참여관찰일지, 비형식적인 대화, 연구일기, 개방적 면담, 기억상자(memory box)의 항목들, 다양한 종류의 비형식적인 문서, 사진 등이다.

현장텍스트는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구자 또는 연구 참여자가 본인의 주관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Clandinin와 Connelly는 현장텍스트 자체가 이미 연구자에 의해 해석된 텍스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연구자가 일지의 형태로 자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현장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 :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이 단계에서 내러티브 탐구자는 정당화(justification), 현상(phenomena), 방법(method) 이 세 가지 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서전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구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 시키는 일과 개인의 흥미를 더 큰 사회적 맥락 및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landinin와 Connelly는 내러티브 연구가 단순히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에 의한, 약간의 반성적 코멘트와 함께 쓰진 이야기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연구자는 연구 초기에 현장텍스트 내에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가면서 분석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장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적인 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이론을 열거하기 보다는 경험의 현상에 대한 탐구로 시작해야 한다. 연구자의 관심이 현장 텍스트를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연구 텍스트를 통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염지숙, 2003).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에서는 현장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독자들이 이 연구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목소리(voice), 서명(signature), 독자(audience)를 고려해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자는 연구텍스트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참여자의 목소리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너무 많이 들어낼 때 연구 텍스트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참여자 관점에서 쓰일 수 있으며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물을 읽는 독자를 고려하고 연구 가치를 숙고하여 연구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5.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의방식이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선택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참가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내어 그 경향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다른 소그룹 인터뷰와는 다르다.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비형식적인 소그룹 인터뷰와 달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진행이 훨씬 조직적이고 형식적이면서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면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포커스 그룹의 참가자들은 4명 이상부터 12명 이하의 범위로 구성될 수 있는데 구성원이 12명 이상이 되는 큰 그룹은 대화 도중에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4명 이하로 구성되는 작은 그룹은 참여자들 간에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참여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빈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통 4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적당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진행자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진행방법과 질문 등을 미리 계획한다. 토론시간의 배정, 그룹 사이즈와 디자인 방법, 그리고 그룹의 수 등을 미리 계획한다. 질문에 대한 질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환경과 태도, 그리고 질문을 생성하는 방법과 질문의 범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끌어 가는 방법 등을 계획해서 실시한다.

이 그룹의 진행은 미리 작성한 개방형의 질문에 따라 훈련된 중재자가 진행을 하는데 이 때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나 오디오테이프를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토론이 끝나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얻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과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이성숙, 2005).

이 연구방법은 아직은 불명확한 주제를 다루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명확한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여러 사람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명확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자료수집의 방법으로서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응답자가 지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응답자가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서명이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태도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양상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질 좋은 자료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들의 토론을 관찰하면서 응답자의 표정과 태도 등도 관찰할 수 있어서 토론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적은 인원수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대표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우메자와 노부요시, 1987). 그러나 주제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박귀선, 2009).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 포커스 인터뷰와 개인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 명의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방식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1. 연구자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자신의 신념이 이 연구 텍스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자기인식은 연구세계를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행위를 해석하게 하고, 참여자와 대화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김영천, 1997).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 ‘나’의 삶의 체험과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내러티브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또한 해석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와 나의 대화 내용이다.

연구자- “다녀오셨어요?”

연구자 아버지- “어”

연구자- “식사는 하셨어요?”

연구자 아버지- “먹어야지, 공주(연구자)는 밥 먹었나?”

연구자- (오후 8시쯤)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영업(건설)을 하셔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시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다. 일로 피곤하신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방에 들어가셔서 TV를 보시다가 이내 주무신다. 평소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주로 일상적인 내용이며 나의 감정과 나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다. 아버지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평소엔 그냥 소소한 일상으로 지나간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함께 있는 시간도 많고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서 걱정스럽지 않다. 하지만 바쁜 아버지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하루아침에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어색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의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이 없다. 단지 앨범 속에 5살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놀이동산에 간 사진, 나와 함께 놀아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 나를 목욕시켜 주는 사진, 나를 업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다섯 살 때 동생이 태어났고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시작하시고 바빠지셨다.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주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셨고 인정해 주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땐가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라~ 아빠가 밀어 줄게” 라고 말씀 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노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알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 했던 시간에 대한 어색함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셋의 아버지는 흰머리도 생기시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셨지만 여전히 바쁘셔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 존재했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고 싶은 욕구와 요즘에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되었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연구 결과들로 정리될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 즉 적절성과 충분함이 요구된다. 적절성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충분함은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것이다(정금란, 2009).

이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개로 s구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찾아가서 참여자를 소개받는 비확률적 표본추출법인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S구 어린이집 원장님께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원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아버지께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6명의 아버지를 소개 받았지만 2명과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닿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s구 어린이집에 발표회에 갔다가 만나기로 한 아버지는 만나지 못하고 발표회에 오신 다문화가정 아버지 1명을 만나 연구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락이 닿은 아버지께서 부산 외곽 농어촌 지역에 인접한 s구 복지관에 다문화가정 한국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아내를 데려오고 아내가 한국어 수업하는 동안에 기다리며 탁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며 소개해 주셨다. 복지관에 가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동의를 7명으로 얻었으나 1명의 참여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하였으며 또 다른 1명은 연구텍스트를 구성하면서 빠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5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며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 경험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아내의 동반자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및 보고과정을 수용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다문화가정 아버지 다섯 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	나이	학력	직업	부인		첫째자녀			둘째자녀	
				국적	나이	성별	연령	현재상황	성별	연령
강성수	43세	고졸	회사원	베트남	24세	여	2세	어린이집		
박지만	43세	고졸	자영업	베트남	24세	여	6세	어린이집	여	2세
이성현	46세	고졸	회사원 (농업)	베트남	27세	여	1세			
장태환	46세	중졸	회사원	베트남	34세	남	6세	어린이집		
조준욱	40세	대졸	수산업	베트남	26세	여	6세	어린이집	남	2세

가. 강성수¹⁾

강성수(43세)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24세)과 결혼을 하게 된다.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 아내는 키가 크며 잘 웃어서 호감을 느끼게 되어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혼자 나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3번 떨어지면서 5개월 정도 아내를 기다리게 되었다. 현재는 첫째 딸(2세)을 낳고 지금 뱃속에 둘째를 임신 중에 있으며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 손녀를 잘 봐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직장(공장)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1)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아버지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 둔다.

나. 박지만

박지만(43세)은 집에서 쉬고 있는 어느 날 결혼정보 업체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베트남 여성(24세)과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한 아내의 고향인 베트남에는 자주 비가 내렸으며 사람들은 비에 젖은 티셔츠를 그냥 벗었다가 물기만 짜내고 다시 입는 모습과 강에 들어가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에 있어서 아내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트럭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첫째 딸(5세)과 둘째 딸(2세)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가정생활에 있어 서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아내는 청소, 빨래 등 집 안 일을 맡아서 하며 바깥일은 자신이 하며 가끔 아내의 일을 도와주지만 밖에 외출하거나 어른들이 계실 때,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돕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이성현

이성현(46세)은 동네에 사는 아는 동생 박지만이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들고 와서 국제결혼을 권하였지만 사기 국제결혼이 많아서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다녀오라고 해서 편하게 여행 삼아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27세)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와서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하게 되었고, 한번 유산 경험으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그 때의 마음고생 했던 것을 딸(1세)을 출산하고 털어 놓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쇠를 트럭에 옮겨 실어주는 일을 하고 쉬는 날이나 틈틈이 농사일도 병행하고 있으며, 아내를 위해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 청소를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하거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며 명절 때도 아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가끔 베트남에 있는 처가에 전화해서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 장태환

장태환(46세)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34세)과 결혼을 하고 아들(5세)을 낳아서 살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친정 베트남에 컴퓨터를 사서 선물하고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아내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서 창원에서 부산에 있는 s복지관에 한국어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다. 먼저 창원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에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담당자의 무관심에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내의 한국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서 자녀가 걱정되어서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자녀는 어린이집에 가고 자신은 회사에 가면 집에 혼자 있게 되기에 아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가정의 경제적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 조준욱

조준욱(40세)은 수산업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에 베트남 여성과 결

혼한 동료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을 하려고 했던 베트남 여성이 돈을 요구해서 다른 베트남 여성(26세)과 결혼하게 되었고 현재 첫째 딸(5세)과 둘째 아들(2세)을 낳고 살고 있다. 젊은 시절 아이스하키 선수생활을 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로 자문을 부탁받아서 참여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으며 초혼이고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친지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초에는 아내와의 문화적인 차이와 친정에 가족이 아파서 돈을 송금해 줘야 한다는 잦은 아내의 요구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며 아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아내가 한국에 적응하고 가족 생각하는 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현장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위하여 연구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작업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에서부터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김영천, 2004).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그리고 연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

우 어느 때에도 연구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관명과 참여자의 이름, 지역, 대화에서 거론된 사람 등은 모두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역사와 테두리 안에서 타인을 기술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체적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생활이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막고 연구자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주관성, 역사적 제한성을 인정하고 해석과 표현의 작업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1년 1월 30일부터 2011년 5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복지관에서 아내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만나 포커스 인터뷰와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대화한 녹음자료, 녹음자료 전사본, 연구자 저널, 본 연구자가 작성한 일지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에 있어 연구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참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돌잔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해 토의방식인 포커스 인터뷰를 하였다. 포커스 인터뷰는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정형화된 질문 형식은 없지만 인터뷰를 균형 있게 진행하기 위하

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도착하여 다과를 준비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토의하고 싶은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토의 도중에 의도하기 않게 다른 영역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했다. 토의가 끝나면 추가할 내용이나 빠진 점은 없는지 참여자에게 확인하고 다음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인터뷰를 마쳤다.

참여자들이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인터뷰 내용 중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개인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에게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키는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포화의 신호인 중복, 반복, 지루함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일지란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재구성이며, 연구자 개인의 현장에 대한 지식의 표현이다(Connelly & Clandinin, 1990).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 내용을 회상하면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심리적인 분위기, 의문이나 추가 질문사항들을 연구일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연구일지는 면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방향감을 갖고 다음 면담의 주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시간이 흐른 후에 재 방문해 보면서 ‘거리두기’의 관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포커스 인터뷰와 개인면담 내용은 MP3 녹음기를 통해 모두 녹음하였고, 전사한 내용은 좌우 여백 30, 위아래 여백 15, 줄 간격 160인 A4 용지에 글자크기 10 point로 전사해서 약 175매 분량이였다. 전사기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을 분석하여 유목화하고, 맥락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매번 이루어진 분석과 해석의 자료는 모임의 이야기 주제, 질문거리, 모

임시간, 장소 등 다음 모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선행연구와 이론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한 연구자로서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함께 하였으며(김혜선, 2005), 이것은 매회 이루어진 낱낱의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인 특징 및 흐름을 파악하여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자와의 면담 일정과 주요 면담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

차수	면담 유형	날짜	장소	참석자	면담내용
1회	포커스인터뷰	2011. 1.30	s 복지관 도서관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조준욱	연구주제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참여의사 확인·동의
2회	포커스인터뷰	2011. 2.6	s 복지관 강당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조준욱	-자녀의 출산 -자녀에 대한 양육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게 엄마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와의 어려움 -자녀에 양육에 있어 정부의 지원 -국제결혼을 대한 이야기 강성수- 연구주제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참여 의사 확인·동 의
3회	포커스인터뷰	2011. 2.13	s 복지관 도서관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조준욱	-국제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다문화가정에 지원 및 한국어 수업

4 회	포커스인 터뷰	2011. 2.27	s 복지관 도서관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1.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가정<자료 참고1>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생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및 생각 -다문화 가정의 장점(좋은 점) -다문화 가정의 단점(어려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혜택 -다문화 가정의 미래
5 회	포커스인 터뷰	2011. 3.6	s 복지관 상담실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조준욱	2.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자료 참고2>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점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참고자료 활용)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어려움 극복방법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의 모습 (가정, 어린이집 생활)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떤 정책이 보완점, 바라는 점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의 관련 프로그램
6 회	포커스인 터뷰	2011. 3.13	s 복지관 상담실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장태환 조준욱	3.아버지의 양육참여<자료 참고3>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아버지 자녀양육에 어려움, 문제점 -아버지의 역할 -베트남의 문화
7 회	개인 면담	2011. 4.10	s 복지관 도서관	박지만	개인 면담을 거부
7 회	개인 면담	2011. 4.17	s 복지관 컴퓨터	장태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의 모습

7 회	개인 면담	2011. 4.17	S 복지관 섭터	강성수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에 있어 좋은 점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 극복 방법
				조준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생각 -베트남의 문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각 -아버지 자녀양육 경험
				이성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생각 -다문화 가정의 좋은 점 -아버지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복지관에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베트남 문화
8 회	포커스인터뷰	2011. 5.1	이조꼬리음식점	강성수 박지만 이성현 조준욱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 경험에 있어서 더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이나 인터뷰를 통한 소감

4. 자료분석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의 단순화와 한계 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으로 발견을 중시하며(김영천, 이용숙, 1998),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Marshall & Rossman, 1989)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Clandinin와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연구의 절차 중 네 번째 단계인 “현장 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포커스 인터뷰와 개인면담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전사(transcript)했다. 전사할 때 오디오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였

으며 대화 중 참여자의 반응과 표정, 태도를 지문으로 표시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전사한 것은 복사본을 만들어 정독하고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Marshall & Rossman, 1989)이라 할 수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주제별 약호화와 분류를 하고 주제(theme)들을 탐색하는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주제와 주요 사례를 추출하여 주제별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 및 사례들을 정리하고 소주제 내용 요약 및 해석을 기본으로 주제 코딩을 하였다.

이렇게 코딩된 자료를 다시 해체하여 검토 비교하고 개념화시켜 범주화하였으며, 전체적인 틀에서 드러난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목을 뽑아내어 통합하거나 세분화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주제들은 제외하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하였다.

방대한 자료를 수작업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유사한 주제를 뽑아내기란 쉬운 과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 자료 분석(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도구의 하나인 Nvivo 9를 사용하였다. Nvivo 9는 자료의 구조화, 주제 발견뿐만 아니라 검색과 그래픽 기능을 이용해 질적 연구 결과물에 대한 글쓰기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Nvivo 9는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원 자료를 중심으로(data driven)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기에는 최적의 분석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Nvivo 9, 2011).

연구자 자신이 분석의 틀이 되어서(김영천, 2001) 해석을 해야 하므로 계

속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전사 자료와 관련문헌들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였으며. 질적 분석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몰입하여 사고하는 과정, 한발 물러서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복 순환하면서 분석과 해석의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IV. 다문화가정 다섯 아버지의 이야기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가정과 다른 환경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한 인간으로서 삶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로서 일반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자녀양육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라는 환경으로 인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더해지며 국제결혼이라는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역할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었다. 다섯 아버지들이 경험한 자녀양육은 어떠하며, 그것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이야기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게 했다.

1. 강성수의 이야기

강성수의 이야기에서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또한 아내의 한국 적응을 도와야 하는 어려움, 많은 나이로 국제결혼을 하여 자녀의 출산에 있어 자녀의 건강과 외모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린이집 참여와 병원 방문의 어려움,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자녀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 해가 애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임신했을 적에는 계란 이런 거. 베트남 가게 같은데 가면은 오리, 반쯤 부화된 거 있거든요. 베트남에서는 그게 보양식이예요. (중략)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임신하고 나서 회 이런 거 먹더라구예. 회 묵고 싶다 그러면서 그라더라구예. 그전에는 회 이런 거 묵으라케도 “안 묵는다” 그래캐싸트만은 임신하니깐예. 안 묵던 걸 찾더라구예.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음식과 주거양식의 차이,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시부모, 남편과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시댁습관을 따라야 함은 물론 한국어에 미숙하여 남편 및 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된다(Bollini, Pampallona, Wanner & Kim, 2006). 보통 결혼 후 첫 번째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미만이 83.7%이며, 평균 6.6%개월로 나타났다(김혜련, 2008).

강성수 역시 한국어에 미숙하고 자신에게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임신과 출산, 한국어의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베트남 음식을 파는 곳에 가서 반쯤 부화된 오리 알을 사오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아내가 한국 음식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향 음식을 자주 사 줄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먹지 못했던 회를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찾았으며, 이런 모습에서 아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한국음식에 대해 적응해 가는 것에 만족해하였다.

인자 다 그렇게 또 생각 할 거라요. 애 낳으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범한 아기 노오잖아요. 근데 또 베트남 여성하고 또 결혼 해가 애가 뭐 좀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중략) 그 때 나이가

41살인가? 진짜 느즈막하게 아를 가져가지고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집사람도 베트남이거든요.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우리 ○○이도 좀 생김새가 머슴아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중략) 처음에 볼 때는 진짜 이상하게…… 이거 초음파 검사하고 할 때는 이상이 없드만 얼굴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소아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양극성장애에 위험률이나, 자폐증을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중앙일보, 2007, 9, 26)는 연구결과와 같이 강성수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아버지의 자녀 출산에 있어서 건강 측면에서 걱정을 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아내가 임신을 하고 꾸준한 검사를 받았으며, 다행히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강성수는 자녀의 외모가 한국 아이와 비슷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로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안되다 보니 애로가 좀 많더라고요.

집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한국 엄마 같은 거면 유치원 이런 행사 아니라도 가끔씩도 찾아가가지고, 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애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언어소통이……. 제

가 안 가면은 선생님하고 언어소통 이런 게 정확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관이란 대개 가정 이외의 첫 사회의 경험을 하게 되는 주요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유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적응과 유아들의 실제적 발달의 경로를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므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김현경, 2009). 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유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와 같은 태도와 관점은 유아들에게 많은 영향(박미경, 200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한국인 아버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며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이진숙, 2007)고 한다. 강성수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아내가 한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졌다. 그리고 강성수는 아내의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 키우면서 어려운 점을 딱 겪었는데예. ○○이가 요번에 며칠인가? 이번 주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저녁에 40도까지, 40.5도까지 올라가더라 고요. 근데 인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랬는데…… 집사람이 또 회사 다니

고 이라니깐. 애가 아픈데 제가 빠지기도 그렇고, 집사람도 바쁘고 회사 바쁘고 이라니깐 빠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사람 혼자 병원…… 애하고 같이 보내나놓으면, 이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안되다 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의사가 어찌고저찌고 이라면 반은 알아듣고 반은 흘려듣고 문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사람 앓혀놓으니 말이 서툰데, 그러니까 그런데 애로가 좀 많더라고요.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많은 충돌과 갈등을 빚고 있다(이한동, 2007).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언어 문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한 사례로 한국어를 읽을 줄 모르는 한 여성은 아기를 낳고 그 후에 내린 병원의 처방을 잘 알아듣지 못해 아기를 영양실조에 빠뜨린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을 왔으나 의사소통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다. 위의 사례들이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 한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임지현, 2010).

강성수는 아이가 아파서 열이 오르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 날에도 아이가 아팠지만 바쁜 직장에서 잠시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며 일을 시작한 아내 또한 직장에 가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다.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해도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사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전달을 하지 못하며 의사의 설명 또한 아내가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번에 자녀가 아픔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다. 아빠로서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이가 인자, 반은 외국인 혈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크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잘 적응하고 따돌림이나 이런 거 안 받고 잘 성장 할 수 있을까? 옆에서 아빠로서 또 뭐 잘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많이 하죠.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또래집단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모차이, 언어발달 미숙,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당하는 불이익을 경험(김남숙, 2009; 홍진주, 2004)하며, 따돌림의 주된 이유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조영달, 2006). 강성수는 자녀가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염려하며 자녀가 힘들어 할 때, 아버지로서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베트남 말을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베트남에 갈일도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스스로도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어릴 적에 배워 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면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가 좀 익혀가지고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을테고, 외국어대학이나 그런데 가가 베트남어과나 이런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다 훨씬 빠를 거라예. 빠르다고 생각 하거든요. 베트남 말은 좀 배워 놓으면 나중에 커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예쁘게 잘 커가지고 스튜어디스를 하던지. 아니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 쪽에 일을 한다던지. 회사에 들어 가가지고…….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강성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포부 수준이 높아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절반 이상인 65.9%가 자신의 자녀들이 4년제 대학이상 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조영달, 2006). 강성수 또한 부모로서 자녀가 예쁘게 커서 스튜어디스가 되거나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를 바라며, 부모로서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언어인 베트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2. 박지만의 이야기

박지만의 이야기에서는 자녀와 아내의 영양을 지원 받고 있는 ‘영양플러스 프로그램,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내의 한국어 습득이며 아내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걱정

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 보건소에서 쌀하고 조하고 통 우리 다 받아 타 먹습니다.

보건소가면 다 공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거를 타먹습니더. 쌀하고 조하고 콩 우리 다 받아 묵거든예. 애 엄마하고 애 둘 다 받거든예. 1년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재검사를 받거든.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6개월 끝나고 다시 영양체크를 받거든. 근데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

(2011년 2월 27일, 4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박지만은 보건소에서 쌀, 조, 콩을 받아서 먹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는 영양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수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집단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도순복, 2011),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는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이며,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김지원, 2011). 박지만은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닌 일반가정도 포함된다고 강조 하였다.

나. 선생님하고 통화는 애기 엄마한테 바로 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엄적, 가장으로써의 위엄 그런거죠. 해주는 거 없어요. 집에 갈 때 과자하나 사가지고 가고…… (중략) 선생님하고 통화는 저는 거의 안 하고요. 애기 엄마한테 바로 하라고 합니다. 매일 적는 것도 있거든요. 매일 적으라하는데, 일기장 형식인데 종이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적고, 부모가 적고, 시켜놓으면 알아서 하거든요.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있으나 우리의 사회와 전통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박지만은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으로써 위엄을 중요시 여기며 아내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은 밖에 나가 일 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자와 같은 간식을 사다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버지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아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이중문화 환경에 자녀들이 잘 적응 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조력자의 역할이 또한 요구되어지지만, 박지만은 한국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자녀양육 전부를 맡겨 버리고 스스로 적응하며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정 분담 위기와 고정된 성역할 특히 여성들의 과중한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 및 가사분담에 불만이 발생하게 되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그 분야의 그 센터지. 이런 의료 쪽이나 가정 부분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주여성 센터라 해봐야 주로 상담, 그 위주로 간다 아닙니까? 보건소가서 “공짜로 맞아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아닙니까.

(2011년 2월 27일, 4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도 부서가 많은 거라. 한 군데서 통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도 있고, 교육과학부도 있고, 몇 군데다 보니까…… 정책이 예산은 통틀면 몇 천 억인데, 개인적으로 분산하다가 보니까 없는 거거든요. 여기 찢끔 요기 찢끔 그러니까 안 맞지예.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몇 천억이면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짜여 질것데. 담당이동에 다 쪼개

지가꼬, 부서가…… 보건 쪽이면 보건 쪽에, 교육은 교육 쪽에, 다 분산
돼 뿌니까. 어떻보든 뭐라 해야 되나…… 그렇지 통합은 힘들지…….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주관부처가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등의 부서에서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되어 전국 총 80개 센터에서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다문화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는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국 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한원수, 2011).

박지만은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혼혈인 및 국제결혼
가정의 복지는 보건복지부, 2세의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문제
가 다인종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중앙부처가 관여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부처가 없으며 이
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서
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분
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센터가 만들어졌지만 홍보와 활동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아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제일 시급한 거는 애기 엄마가 한국말 배우는 것이 최고 우선이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내가) 말을 빨리 배워야지. 일단 말을 빨리해야 친구를 사귀든. 다른 거를 하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2011년 2월 27일, 4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제일 시급한 거는 애기 엄마가 한국말 배우는 게 최고 우선이거든. 내 지금 공부 안하고 있으면 몇 년만 있어봐라. 후회한다고 지금은 같이 맞벌이 한다 해도, 공부 안하고 지금 당장 몇 십 만원 번다고 좋겠지. 근데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막 따돌림 받고 뭐 받고 정체성 혼란이 온다 케짖고…….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애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어린이집 해봐야 별거 해주는 거 없거든. 근데 학교 막상 딱 들어가면 또 틀리. 달에는 정기적으로 학교 가가, 깃발도 들어야 되제, 청소도 해 줘야 되제, 밥 도시락, 배식도 해 줘야 되제, 봉사활동, 그런 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차이 나는기라. 자기 엄마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애들 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말 나오는기라. 그래서 자꾸 애 엄마보고 될 수 있으면 공부시키라는 이유가, 지금은 표 안 나겠지. 딱 학교가면 표 난다니까. 과제물을 애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다. 부모가 거의 80, 90% 다 챙겨주야지. 당연히 그래 되는 기라.

(2011년 5월 1일, 8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국제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가 늦고,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취학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다(오성배, 2007). 이처럼 박지만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의 한국어 부족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한국어 습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는 아내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 많이 없으나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교실 청소도 해야 하며 점심도우미, 등교지도 등의 참여가 많으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박지만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부모의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되어지는데 있어 걱정을 하였으며, 아내가 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내의 한국어 습득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였다.

3. 이성현의 이야기

이성현의 이야기에서는 임신한 아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과 아내의 출산을 돕는 이야기, 늦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기쁨과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자녀양육에 있어 많은 나이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 배가 불러오고 힘들다고 “쉬면 안 돼?”

공부하는 게 태교 아닙니까? 결국엔 일주일마다 여기 공부하러 오제, 숙제 내준 거 집에서 숙제하제, 그 마이 좋은 태교가 어디 있다고 음악 같은 거 그 감성 좋아지라고 듣는다 카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엄마들 임신했을 때 공부하는 엄마들 몇이나 있겠노. 10명 중에 없다. 와이프가 공부해준 것 만해도 좋은 태교했다 생각하면 된다. (중략) 배가 불러오고 힘들다고 “쉬면 안 돼? 누워, 누워” “당신 아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님이 당신 힘들면 한번 안하면 되지만 서도 공부 안 해봐라 나중에

자기 딸 공부 안하면 우짤끼고 얼마나 속상하노”.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태교를 유안진(1992)과 이동민(1989)은 ‘임신하여 태아를 출산할 때까지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중 임신부의 아기에게 주는 교육, 또는 임신 중 아기를 인간으로 형성,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이성현은 복지관에 진행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참여와 한국어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어 숙제를 집에서 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 태교로 생각하였다.

최근에 정부의 주도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원만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다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지원 사업 중의 주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있다. 한국 내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복지단체와 이주여성 센터와 같은 곳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임지현, 2010)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것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육’이 1순위로 나타났다(유진이 외, 2007). 최근에 많은 사회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 1회 또는 주 2회로 한국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간확보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서혁, 2007).

이성현 또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삭의 몸으로 움직이기 불편한 아내가 집에서 쉬었으면 하지만 아내에게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를 권하였다. 이와 같은 이성현의 모습에서 아내의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처형이) 아 마니 돌봐주고 한끼네. 목욕도 다 씻겨주고 하제. 그 인제 몸 조리 하구로 할끼라고 초청 했은께네. 병원에도 내 같이 있꼬. 자기 땀에는 마음이 좀 편했겠지.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즈거 나라 과일 사주라 카면 사주고, 내 땀에는 잘한다고 해줬는데, 모르지. 지 마음은…… 마음에 드는가, 다 주위들이 잘해줘라. 어찌해 주는 게 잘 해 주는 건지…… 사람들이 잘해줘라 케싸던데.

(2011년 2월 13일, 3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임신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국 음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지적되었고, 출산 시에는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함과 산후조리,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시에는 본국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과 산후조리·육아방식의 도움 및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본국의 음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설동훈 등, 2006).

이성현은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알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해줄 친정언니를 초청하여 아내가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다 주었으며 주위에서 임신한 아내에게 신경을 쓰도록 이야기를 해서 아내에게 더 잘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나. 신랑이 알아서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

내 어릴 때 얼굴하고 어찌 그리 닮았는고. 씨 도둑질은 못 하는긴가.. 내가 참…… 그래서 어른들이, 우째 딸래민데 저거 엄마 안 남고 아빠를 닮아 가꼬. 이리 어릴 때 저하고 똑같은고…….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더 귀한 아지. 늦게 나아 놓은께네. 밤낮이 조금 바뀌었는가. 낮에는 내 자고. 밤에 인자, 저녁 늦게 내 퇴근해가 오면 저녁에 눈이 뚱글뚱글 해가 꼬 내 조께 밤에 늦게까지, 새벽에 올 때도 있꼬..."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출산연령과 자녀에 대한 애정적 질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Finley, 1998). 아버지의 경우에는 젊은 아버지보다 출산연령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한 애정적 질이 더 높다. 따라서 늦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늦둥이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적 질을 바탕으로 이들의 양육과 부모 역할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부모의 연령은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자극을 주고 자녀의 요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성숙의 지표가 되며(Belsky, 1984). 늦은 시기에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다.

이처럼 많은 나이에 이성현은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렵게 얻은 딸이기에 자녀에게 있어 더 많은 애정을 보였다. 또한 자녀의 얼굴이 자신의 어렸을 때 얼굴과 닮아, 그런 아이의 모습에 신기하다는 듯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신랑이 알아서 어느 정도 챙기야 된다. 녀미 알아서, 우리나라 정책이 가만히 있는데 챙겨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11년 2월 27일, 4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부부 적응과 가족적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 중요

하다(김경은, 김민경, 2009). 다문화가정의 아내는 한국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며, 남편은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일부분 아내의 역할까지 맡아 해야 한다. 이성현은 남편이 정부의 지원이나 자녀양육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며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은 자신이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돈이 많이 안 나와요.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우짜고 케싸도. 나온 거 보면 3인 가구 얼마, 140만원 이하 요세 월급제이 하면서 120만원 100만원 받아가 누가 먹고 살아라꼬. 고소득자 말고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다 해줘야지. 그라고 애 많이 놓으라고 그래야지.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교육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발달과 학습의 잠재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고 평등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다(문무경, 2010).

정부의 보육비 지원 혜택 대상으로 2010년까지는 전체 가구 소득하위 50%인 월 소득 258만 원인 가구만 보육비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 정액 450만원 이하면 된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월 498만원이었지만, 2011년부터는 월 600만원까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배새롬, 2011). 이성현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시대에 자녀의 출산을 도울 수 있는 보육료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1년 3월부터 전액 보육비 무료로 지원된다. 하지만 아무리 보육비 전면 무상이라고 해도 정해진 국가지원금으로는 보

육료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급식비, 단체복비, 야외활동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부가 보육비가 들어간다. 즉, 보육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이 그에 상응하게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김기신, 2011).

다.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그 전에 다 준비를 해 놔야 하는데

(국제)결혼했던 자녀들이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적응을 못한다고 tv에서 몇 번 다뤘어요. 내가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아는 놓으며 나중에 우짜 되겠노……. 이런 걱정도 하고 이래 했구만.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부적응이라는 현상에 대해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은 연일 보도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일보(2011.10.17)에 “다문화자녀 절반정도 학교 다녀.”, 문화일보(2011.06.30)에 “언어장벽·따돌림…절반이 적응 못하고 학교 밖 떠돌아”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현도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TV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만 느껴지지 않았으며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국제결혼 초창기에 많은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자녀가 학교에 갈 때쯤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아를 낳았으니까, 이아가 커서 결혼할 때 쯤 내가 나가 몇 살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면 되면 내가 나가 몇 살 인데, 그때 내가 좀 사회생활 할 그것도 안 되는데 우짜겠노.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앞으로 정책이 10년 20년 뒤에 교육정책 같은 것이 더 좋아져가지고 경제적 문제가 좀 많이 들어지는 것 같으면, 또 좀 나아지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거 같은 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앞으로 더 좋아지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되고, 대학교 학비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전에 내가 더 나가 들기 전에 1·20년 안에 더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2011년 3월 6일, 5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다녀온 이성현은 자녀와의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만큼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용미, 2005)는 연구 결과와 같이 이성현 또한 자녀가 커감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보며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가족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을 추구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자녀 양육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박숙자, 2003).

4. 장태환의 이야기

장태환의 이야기에서는 바쁜 회사생활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과 아내의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의 어린이집에 보낸 이야기, 맞벌이로 인해 아침 출근시간에 자녀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그리고 현재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없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 아내가 한국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최소한 일찍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 회사 가고 나면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씻고 운동하고 오면 아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7시 되면 마치고. 마치고 운동하고 집에 가면 9시. 애가 자고 있다고. 애하고 놀 시간이 없어. 해주고 싶은 거는 지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줄만하면 들어주고. 내가 들어줄 것 없는 거다 생각되면, 못 들어 주는 기지. 지가 “장난감 하나 사 달라” 그러면 가서 가격을 보고 비싸다 그러면 못 사주는 기라. 이것이 적당하다 좀 싶으면 사주고 그런기라.

(2011년 3월 13일, 6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나는 회사 다니기 때문에 애하고 접촉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노는 날 애들하고 와이프랑 같이 비비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다예요. 노는 날 따른 데는 안 가니깐요. 와이프하고 애하고 같이 즐긴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하면 텐다 생각해요. 노는 날…… 어디 볼일 있으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노는 날은 그냥 집에서 와이프하고 애하고 같이 있어 주는 게 그게 내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 하는데요.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은 물론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교육적 배려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어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들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수행의 시간상 부족하다. 장태환 또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바쁜 회사생활에 아이에게는 신경을 못 쓰는 편이며, 평일에 회사를 마치고 재활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와 놀아 줄 시간도 없다고 하였다. 보통 자녀양육과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며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보조역할이나 이차적인 양육자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통적인 기능인 도구적인역할만 아버지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정정희, 2000).

한편,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아버지가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자녀양육 참여의 양은 어머니에 비해 결정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와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장태환은 자녀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려고 하였다. 되도록 회사에 가지 않는 날에는 되도록 자녀와 아내와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하며 불일이 있을 때는 잠시 다녀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아는 엄마 한국말 제대로 못 하니까는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저녁에는 어린이집 마치고 오면 엄마가 엄마 전적으로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 하거든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고. 와이프가 한국말 제대로 되고 거러면 어린이집 늦게 보내도 텐하지만, 와이프가 한국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최소한 일찍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가 세 살 안 텔 때 그때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보내고 지금은 즈그 엄마 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2006)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태환 또한 한국어가 서툰 아내의 언어로 인해서 자녀의 언어가 걱정되어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한다.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보육시설을 일찍 이용한 경우는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발달상 커다란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공민정, 2011)는 연구결과와 같이 장태환은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언어발달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보여 지지 않으며, 아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하였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베트남어도 배우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나. 애하고 아침에 전쟁이라예

애가 밥을 안 먹을 때, 와이프가 큰소리 치가면서 밥을 먹이는 거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지금도 아침에 집사람이, 집에 내 회사가 애 어린이 집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와이프 혼자서 있기도 그래 놓은끼네 조매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출근 시간 때문에 애하고 아침에 전쟁이라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는데…….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장태환은 아내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아이가 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다. 그러므로 맞벌이가정과 같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하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아이를 아침밥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지만 잘 먹지 않으려는 아이로 인해 아침부터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며, 그로 인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Cri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 사건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 기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장태환은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깨우고 준비 시키는데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내가 다문화가정 보육료 무료라 해가 내가 전화 안했으면, 내가가서 이야기 안했으면 연락도 안할 놈들이라. 내가 알아서 챙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지. 그때서야 받아준다고. 저것들이 이런 정책 보육료 감면 제도가 있는데, 저것들이 먼저 연락해주면 우린 좋다 이거야. 저것들은 속 빠져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동사무소가 신청을 해야 돼. 이번 보육료도 그래요. 이번 보육료도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쉽게 방송, 뉴스 못 보면 우리같이 바쁜 사람은 아예 찾지를 못해요. 아예 찾지를 못한다고. 일 갔다 오면 지치가지고 집에 오면 한 9시에 들어와요. 와가지고 밥 먹고 자기 바빴거든요. 마스크 아니면 몰라요.

(2011년 2월 27일, 4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 뿐 아니라 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가정 및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곽금주, 김근영, 김효정, 배소영, 정경희, 200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 지침과 실행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

장태환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정보가 전달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또는 본인 관련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합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생활과 정책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창구일원화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 홍보책자, 리플릿, 안내문 방송을 통하여 지속적 홍보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전달의 매체역할을 활성화하고,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하여 청취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 크게 걱정이 없습니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걱정 데는 건 없어요. (중략) 걱정 크게 없습니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꺼. 아직 어린데, 커가지고 나중에 떠 어에 텔란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쁜 짓만 안하면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11년 4월 17일, 7회차 개인면담 중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 중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녀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잠재 되어 있는 문제는 더욱 크다(통계청, 2009)고 보고 있으나 장태환은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으며,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고 양육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자녀가 자라면서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한국염(2006)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려서 아직 정체성 문제가 심

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5. 조준욱의 이야기

조준욱의 이야기에서는 임신한 아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프닝과 첫 자녀를 출산하고 아버지가 되는 경험, 아버지의 어린이집 일일교사 참여와 아내의 나라에 대한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 처음에 오자마자 “오빠 임신 있어요.” 그러는 거라

첫째 애가 임신했다고 들었을 때 그걸 언제 들었었냐 그러면. 베트남 가서 결혼식하고 나서 나왔는데 집사람이 다시 한국에 나와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처음에 오자마자 “오빠 임신 있어요” 그런기라. “뭐가 있어” 아버지는 모르고 “한번 찾아봐라” 가방 뒤져봐도 뭐가 나오나 우리 엄마 “어이구, 영감쟁이나 아들이나 저 모지래가지고” “임신했다 안 카드나”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못 알아듣고…….

(2011년 2월 13일, 3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을 하여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도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먼저 나와 있었던 조준욱은 아내의 임신 사

실을 알지 못했으며 아내가 인터뷰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나왔을 때 아내의 “임신 있어요.” 라는 말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려면 모국어로 얘기해야 하는데, 한국어로는 다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딱 첫째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서 첫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머라할까?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인제 그 우리부모님이 겪었던 것을 나도 겪는구나 했는데. 점점 배가 불리오면서 출산일이 다됐어요. 그런데 애가 안 나오는기라. 애가 안나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애가 잘못될까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남성은 첫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출산의 의미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의 전환, ‘남편과 아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심리적 의미의 역할 변화를 가져온다 (이희연, 2003).

한편,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출산의 기쁨, 설렘과 동시에 처음 겪게 되는 경험으로 아버지 스스로에게 낯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조준욱 또한 자녀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부담감 또한 느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임신소식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참 좋았다는 양가감정을 느꼈으며, 실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아직 아기가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기가 점차 자신을 알아보게 되면서 자신이 아버지가 됐음을 느끼게 되었고, 점차 부모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통해 에릭슨의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 획득, 레빈슨의 성인기 발달이론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되기’를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 확립해나감으로써, 자아정체감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황정해, 2006)는 연구결과와 같이 조준욱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자아정체감을 공고히 하였다.

나. 유치원에 한 번 갔는데 “아빠는 배도 나오고 머리도 없고 창피하다”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제 겪고 있는데 유치원에 한 번 갔는데 오지 말라 하는거야. 왜 오지말라 하나면 하나까 “아빠는 배도나오고 머리도 없고 안 된다 오지마라 아 창피하다”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부모님이 안계시나,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옛날에 국가대표도 했었고 하나까.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달라 해서 그걸 좀 해줬는데, 우리 딸래미가 좋아하더라고 처음에는 “아빠 왜 왔노, 아빠 오지마라, 아빠는 밥도 많이 먹고 배도 나오고 그런데 오지마라 아빠가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좀 나아졌어요.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름이나 기미, 검버섯을 제거하거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이다(국민일보, 2009, 3, 4; 연수신문, 2008, 3, 19). 자녀가 자신의 나이 든 외모 때문에 자녀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성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의 뚱뚱한 외모를 창피하고 부

끄럽게 생각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일일교사로 부탁을 받아 자녀의 수업에 일일교사로 참여하여 아이스하키 선수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일교사로 참여한 이후로 자녀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겼던 마음이 풀어졌는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다르고 나는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엄마 고향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뭐 굳이 연고가 없기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는 갈 수 있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스운 나라가 아니다 진짜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앞으로 우리나라만큼 독립성이라는 그런 것이 강한 나라다. 무시할 나라는 아니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특히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야기했죠. 나중에 너희가 커가지고 역사를 배우면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절대 무시할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참 좋고 하지만 베트남도 좋다 나는 언제든지 있다가 베트남에 유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계시니까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엄마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다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야기 하죠.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아내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조사 결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는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조영달, 2006).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아에게 거의 하지 않거나 가끔 하는 부모들이 많아 유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정님, 2009). 그러나 조준욱은 자녀에게 아내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갈 수 있으며 베트남에 가면 외갓집가족이

있어 머물 수도 있다는 다문화가정이어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나라임을 설명하며 엄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들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다문화가족하면 한국에서 부적응이라는 공식을 성립해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심어 놓고, 바람직한 적응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공수연, 2009). 다문화가정 자녀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좋은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안 있겠나?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외국인이라서 학교 갈때 가면, 학교 다니면 조금 “외국인이다”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안 있겠나? 그런 걸 느끼는데, (중략) 아마 그때 ○○가 학교 들어갈 때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 지금도 제법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초등학교 가면, 점점 크면서 난관에 부딪치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1년 2월 6일, 2회차 포커스 인터뷰 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험은 자신감 결여, 폐쇄적인 대인관계형성, 학업 성취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 이에 따라 많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당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5). 조준욱 역시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주변의 편견이나 차별, 멸시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거나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남들과 다른 외모, 어눌한 말투, 형편없는 성적으로 인해 또래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배척대상이 되기도 한다(박미단, 2009). 하지만 조준욱은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편견과 차별을 잘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그의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사회적 포용과 교육적 필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김현경, 2009).



VII.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경험 다시읽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것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에서 그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체험한 일들과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포커스 인터뷰와 개인면담을 통해 구술하였고 연구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에 대해 탐구하였다.

다섯 명의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이야기에서 강성수는 아내의 한국에 적응과 동시에 자녀의 출산을 옆에서 도와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임신한 아내가 고향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만 한국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사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늦은 결혼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출산에 있어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모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자녀가 한국 아이와 다른 외모로 인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린이집의 생활과 상담에 참여를 해야 하며 자녀가 아플 때도 병원에 같이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혹시 다문화가정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아버지로서 잘 키워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아내의 언어를 습득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박지만은 ‘영양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영양체크를 받아서 쌀, 콩, 밀가루 등의 식품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자

녀양육에 있어서 위엄 있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바깥일을 담당하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역할은 집안일과 전반적인 자녀양육을 맡아하는 것이며, 한국어가 서툴고 어려워하는 아내에게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매일 작성하는 보육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내가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아내의 한국어 습득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부모의 참여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다.

이성현은 만삭이 된 아내가 집에서 쉬고자 하였지만 복지관에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하였다. 아내가 한국어 교육의 참여를 바라는 모습에서 아내의 한국어에 대한 걱정 또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가 낯선 아내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늦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졌지만 유산으로 인해서 계속 임신에 실패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즐겁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자녀를 출산하고서야 임신이 되지 않아서 걱정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또한 많은 나이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많이 들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와 대중매체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접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장태환은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서 평일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며 직장에 가지 않는 날 집에서 함께 놀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적인 어려움이 걱정되어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으며 현재 아내보다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하였다. 아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집에 있

어야 하기에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러 다니며, 맞벌이로 인해서 아침시간에 출근준비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준비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며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바쁜 직장생활로 다문화가정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며 다문화정책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의 홍보에 대해 가장 접하기 쉬운 마스크를 통해서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현재 자녀양육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며 자녀가 잘 자라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조준욱은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임신 있어요.”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첫 자녀를 출산하고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걱정이 양가의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다. “아빠는 배도 나오고 머리도 없고 창피하다”며 어린이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어린이집의 일일교사의 참여는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였다고 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녀와의 대화로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아내의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써 좋은 점에 대해 알려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들 다섯 명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이야기를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복합적인 역할, 맞벌이 가정과 늦둥이 아버지의 이미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서 실천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상 어려움의 요인들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양육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 할 때, 자녀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는 일반가정에서의 역할보다 더욱 복잡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 한국남성 역시 결혼 부적격자라는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배우자를 불신하는 원가족과의 갈등 등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집사람 혼자 병원…… 애하고 같이 보내나놓으면, 이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안되다 보니까”

국제결혼의 경우에 결혼이후 부부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거주함으로써 외국인 어머니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반면 들은 익숙한 일상생활 및 관계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적응기제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강성수의 이야기에서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지만 아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같이 가야 하는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생활지도참여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아버지가 기본예절지도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원, 2011).

전경숙(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외나 놀림, 차별 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보다도 학교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보완하여 자녀에게 한국사회에서 익혀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2.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특성

그 동안 여성결혼이민자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이미지로는 가부장적인 권위와 봉건주의적 향수에 젖어 배우자를 억압하는 폭군이나 매매혼의 혼주 등으로 묘사되어 왔다(김진숙, 이근무,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이야기에서는 많은 나이에 자녀를 낳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 늦둥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에 있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에 아내가 직장에 나가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맞벌이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여기서 맞벌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애가 뭐 좀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때 나이가 41살인가?”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소아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양극성장애 위험률이나, 자폐증을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국민일보, 2009, 1, 30; 중앙일보, 2007, 9, 26)는 보도와 같이 강성수의 이야기에서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를 일상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도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용미, 2005).

“더 귀한 아지. 늦게 나아 놓은게네.” (중략) 밤낮이 조금 바뀌었는가. 낮에는 내 자고. 밤에 인자, 저녁 늦게 내 퇴근해가 오면 저녁에 눈이 뚱글 뚱글 해가꼬 내 조개 밤에 늦게까지, 새벽에 올 때도 있꼬...”

늦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늦둥이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적 질을 바탕으로 이들의 양육과 부모 역할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손정미, 2009)는 연구 결과와 같이 이성현의 이야기에서 자녀를 늦게 낳았기 때문에 더 귀하며, 일을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자야하지만 자녀가 밤낮이 바뀌어서 자지 않고 울어도 아기라서 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모 역할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양육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버지로써의 의무감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고 양육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

“아빠는 배도나오고 머리도 없고 안 된다 오지마라 아 창피하다”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름이나 기미, 검버섯을 제거하거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이다(국민일보, 2009, 3, 4; 연수신문, 2008, 3,

19). 이와 같이 이성현의 이야기에서도 자녀가 아버지의 외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자녀가 자신의 나이 든 외모 때문에 자녀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아가 커서 결혼할 때 쯤 내가 나가 몇 살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되면 내가 나가 몇 살인데, 그때 내가 좀 사회생활 할 그것도 안 되는 데 우짜겠노.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이성현의 이야기에서 늦둥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걱정으로 자녀와의 나이 차이, 끝까지 경제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들이 늦둥이 자녀를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는 강희경(1994), 김용미(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늦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아내가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고향에 돈을 보내주고 있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가정의 모습을 보였으며,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녀양육에 있어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집사람이 임신 3개월인데, 일하러 나간다케서 일하러 나갔거든요.”

이처럼, 강성수의 이야기에서도 아내가 둘째 아기를 임신하고 일을 나가고 싶어 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를 돌 봐 줄

어린이집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으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로서의 자녀양육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집사람이 또 회사 다니고 이라니깐. 애가 아프데 제가 빠지기도 그렇고, 집사람도 바쁘고 회사 바쁘고 이라니깐 빠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사람 혼자 병원…… 애하고 같이 보내나놓으면, 이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안되다 보니깐 (중략) 문 알아듣는 거지요.

강성수의 이야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로서의 아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아내 혼자 아픈 자녀와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맞벌이가정으로 아내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 결근이나 조퇴를 하기 어려우며, 아버지 또한 바쁜 회사에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잠시 나오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장태환의 이야기에서 맞벌이 부부로 자녀를 아침에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아내가)조매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출근 시간 때문에 애하고 아침에 전쟁이라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부모 자신 및 배우자의 특성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김민수, 2009), 맞벌이 부부로 매일 아침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영아의 등원을 돕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박영미, 2007)가 요구되어 지고 있었다.

맞벌이가정이 당면하는 문제는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가족관계, 직업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남궁기순, 2005), 아버지의 역할과 지지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영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가정의 양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방향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자녀와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경제적 비용에 대한 걱정에서 “다문화가정 아버지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이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동사무소가가 신청을 해야 돼”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태환의 이야기에서도 직장생활로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우며 다문화가정에 관한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호소하였다. 다문화가정 정책에 관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접하기 쉬운 매스컴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문화가정 정책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과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영주권관련 정보나 귀화 절차, 필요한 서류 작성에 관한 정보를 외부의 다른 기관보다 자조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지 및 위로를 받았다.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은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 내면으로 억누르거나 삭이는 등의 방법들을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우며 결속력을 다지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서적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이영희, 2010).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 한국인 아버지를 위한 심리적 갈등해소 지원으로 아버지의 경제부담, 어머니의 양육부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적인 안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김소영, 2011).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다. 박지만은 보건소에서 영아와 산모의 영양을 지원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자녀와 아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보건소가면 다 공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거를 타묵습니다.
(중략)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한편, 박지만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의 연계 없이 다수의 정책을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산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 부처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진아, 2010).

다문화가정 정책 중에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대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박지만은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내의 한국어 실력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 맞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정책적으로 더 많은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며 홍보

는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경험을 자녀의 임신부터 출산, 현재 자녀양육,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기대에 대해 범주화하여 살펴보았으나, 다양한 국적별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탐구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나이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고민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한 점점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희(2000). 군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 연구.
- 강정원(1994). 아버지의 놀이참여 형태와 유아 자신의 유능성 지각.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수연(2009).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진수(2006).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 : 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김근영, 감효정, 배소영, 정경희(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한국언어치료학회지**, 18(4), 165-184(20).
- 구효진, 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족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공민정(2011).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보육프로그램 요구도 및 기대에 관한 연구. 경남과학기술대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김민경(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기신(201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학회지**,
45(4), 97-121.
- 김남국(2007). 제2장 논평: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최종보고서, 국가정
책연구.
- 김남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민경, 김경은(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민화, 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선애, 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국생활과학회지**, 55-64.
- 김소영(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 몰입 유형에 따른 생활만
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1).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설동훈, 심인선, 이혜경, 정기선, 조애저(2010).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아름(2009).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문화적 지원방안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2).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5-38.
-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 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영천(1997). 네 학교 이야기. 서울: 문음사.
- 김영천(2004).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김영천, 이용숙(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 학사.
- 김용미(2005). 늦부모됨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67-178.
- 김은주(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주(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2008). 다문화 도서를 통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의 실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이근무(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135-162(28).
- 김진아(2010).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화(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09). 결혼 이주여성의 모자보건 및 모자영양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0-64.
-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 김혜순(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색: 세계화 시대 이민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김혜자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효능감 및 교육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2008). 다문화 가정의 유아·자녀들을 위한 박물관 연계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1995).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역할수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기순(2005).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순복(2011). 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프로그램 평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르코 마르티엘로(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역. 서울: 한울.
- 문무경(2010).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정책과 성과. **열린 유아교육연구**, 9-24.
- 박귀선(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단(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 연구**, 14, 225-261.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미경, 이승연 (2008).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개념, 실천 형태 및 실천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8(2), 5-27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세원(2007).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 인류학회지**, 10(1), 37-62
- 박성연(2001).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2003).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8, 121-145.

- 박영미(2008). 아버지의 양육신념 및 양육참여와 아버지-영아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원(2011). **질적자료분석: NVivo 9 응용**. 서울: 형성출판사.
- 박지희(2002). 다문화 반영도서를 통한 토의활동이 인종에 대한 유아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0).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서종남, 최현미(2009). **우리는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12**, 1-24.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윤홍식(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110**, 247-265.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317-322**.
- 설동훈, 장지혜(2006).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한국사회학회, 85-86**.
- 손정미(2009). 다문화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도영(1995). 전지구화 속의 탈식민과 한국문화의 '국적성'. 목원대학교 현대사

- 상연구소. 161-167.
- 송지연(2008).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교육 신념 연구: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도유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효숙(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정(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효진, 전덕수(2008).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옥승(1997). 유아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III. **교육연구**, 5, 49-66.
- 엄정숙(2000). 아버지 역할수행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12, 1-15.
- 우메자와 노부요시(1987). **포커스 그룹 인터뷰**(강우석 역). 서울: 엘·지·애드.
- 유정님(2009). 공립유치원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실태 및 지원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 홍영균(200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5(3), 89-100(12).
- 이교일(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과성의 영향 변인 연구. 대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무영(2010).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미, 송지연(2008).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 신념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185-214.

이성숙(2005).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살펴 본 학습장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세미(2007). 젊은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보상 및 대가지각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은, 서현(2008).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교육실태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9(4), 147-166.

이영주(2007).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희(2010).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연구 제8호.

이지원(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 8(2), 1-1.
- 이혜원(2009). 교육적 통합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동(2007).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2000). 유아교육에서의 반편견 교육의 적용. **경북논총**, 4, 299-321.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 임덕수(2008).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 다중지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현(201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체제 구축 방안.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숙(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인규(2001). 통일교 청년문화운동 정립을 위한 한 연구: 건국대학원리연구회와 한국대학생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문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1997).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희(1997).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35, 295-309.
- 전경숙(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혜진(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군산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란(2009). 초등학교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경(2009). 영아 아버지의 양육지식과 애착.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애(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현(2006). 유아 다문화교육 자원으로서의 박물관 활용에 대한 기초 사례 연구:아프리카 박물관의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99-325.
- 조원지(2001). 아버지 역할수행, 직업 역할수행 및 직업역할에 의한 아버지의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최명선(2002).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의 내용분석. **한국가족복지학**, 7(1), 95-114.
- 조승호(201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채옥희·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경숙(2008). 다문화 그림이야기책을 활용한 3C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편견감소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2008).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2), 65-79.
- 최연선(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

연구, 6(3).

- 최윤희(2003).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국제협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충욱 외(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 통계청(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경혜(1998) 직장보육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 종합병원 취업모의 양육실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염(2006).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대책 -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인권 보호의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70-86.,
- 한승준(2008). 동화주의 모델 위기론과 다문화 주의 대안론 : 프랑스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 106-107.
- 한원수(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현이(2011). 미취학 자녀를 둔 일반가정 아버지와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pas.go.kr>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경순(2008).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길희, 황정혜(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 홍승민(2005). 부모전이기 남성의 아버지 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지각과 아버지 역할수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해(2006).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 24(2), 43-60(18).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ker, P. M.(1999).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Role of
gammaENaC Subunit in Lung Liquid Clearance and Electrolyte
Balance in Newborn Mice. Insights into Perinatal Adaptation and
Pseudohypoaldosteronism. 102(8)
- Bollini, Pampallona, Wanner, & Kupelnick, Kim, Y. L.(2006). Pregnancy
outcome of migrant women and integration poli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Social science & medicine*.
- Connelly, F. M, & Clandinin, D. J.(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verman & Sheley(1986). "Change in men's house 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9(48).
- Grossman, F. K.(1987). Separate and together: Men's autonomy and
affiliation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P. W. Berman & F. A.
Pedersen (Eds.), *Men's transitions to parenthood*(89-122). Hillsdale,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Inglis, C.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 4, UNESCO
- John. Storey(1996).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c 1996.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p. 137~144) and index. Scotland.
- Padgett, A. G(1998). Cosmic Beginnings and Human Ends: Where Science and Religion Meet edited by Clifford N. Matthews and Roy A. Varghese. 161(33). ZYGON
- Kymlicka(2001).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New York : Oxford.
- Marshall, C., & Rossaman, G. B.(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Nugent, Walter(1991). *The Humane Economy: Populism, Capitalism, and Democracy* . 1617(91-96) American Historical Review
- Zehraoui, A.(1995). Les cites de banlieues in Les Temps Modernes.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이 경 화

연구자 : 임 회 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약 5개월간 면담을 실시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고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 _____은(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의 기기 사용에 동의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연구 참여자 (인)

2011년 월 일